

- 한우협회, 서울지역 초중고교 대상
- 한우급식 무상 지원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우리 한우의 뛰어난 맛과 영양학적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서울지역 초, 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한우 맛 체험 행사를 갖는다.

신청은 서울지역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청 학교에는 교직원과 학생 인원에 따라 한우 불고기용 정육(1인당 초등학생 80g, 중·고생 100g)을 무상으로 지원받게 된다.

한우 불고기 급식을 희망하는 학교는 5월 30일까지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에서 소정의 양식을 받아 이메일로 신청 가능했으며, 선정 학교는 31일(목),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한편, 이번 청소년 한우맛체험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또는 전국한우협회 유통사업국(02-525-105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우자조금, 그린플러그드 서울서
- 한우 맛·우수성 알리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5월 19일(토)~20일(일) 양일간 서울 난지 한강공원에서 열린 환경캠페인 뮤직 페스티벌 '그린플러그드 서울 2018'에 참여해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로 축제를 찾은 관람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우리 한우의 우수한 맛과 영양학적 우수성을 알렸다.

그린플러그드 서울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착한 생각과 작은 실천을 모토로 지난 2010년부터 매년 5월 환경보호 캠페인과 함께하는 뮤직 페스티벌로, 올해로 9회째를 맞았다.

이번 행사에 한우자조금은 한우 푸드트럭을 활용해 한우 불고기 시식회를 여는 한편, 취향에 따라 직접 한우버거를 만들어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관람객에게 제공했다.

또 푸짐한 경품 이벤트를 마련해 축제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우자조금 민경천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우리 한우의 우수한 맛과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한돈협회, 한돈 농가악취저감
● 관리지침 마련·우수사례 발굴

정부가 매월 10일을 ‘축산환경 개선의 날’로 지정한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양돈장 악취저감 기본 관리지침 마련, 악취저감 우수 사례 발굴 등의 자체 실천 활동을 추진한다.

농가들에게는 악취저감이 축산환경 개선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한돈협회는 양돈장을 운영하기 위해 농가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농장 관리 요령을 담은 ‘한돈 농가 악취 기본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전국 122개 한돈협회 지부를 통해 전국 양돈 농가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 악취저감 교육에도 나서 협회 지부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축산업 허가제 교육에 ‘양돈장 악취저감 방안 및 사례교육’을 포함시켜 한 농가도 빠짐없이 악취저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가에서 악취저감 활동을 제대로 실천하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악취저감을 위한 농장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급하고, 이를 축산환경 개선의 날에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이 외에도 매년 한돈자조금 지원을 통해 농장 악취저감에 효과가 있는 스트로브잣나무, 촉백나무 등을 방풍림으로 보급하는 ‘깨끗한 축산농장 가꾸기’ 사업도 이어갈 예정이다.

● 한돈자조금, 대학축제 현장 중심
● 다양한 한돈 프로모션 진행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2030 젊은 세대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대학축제 현장을 중심으로 한돈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한돈 프로모션에 나섰다.

지난 5월 16일(수) 광운대를 시작으로 명지대, 서울시립대, 홍익대, 서강대, 고려대, 한양대 등 총 7개 대학교 축제현장에서 진행된 한돈 페스티벌은 푸드트럭 ‘도니카’를 활용한 한돈 철판삼겹살 시식행사, 룰렛 게임, 한돈 부위 맞추기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몄다. 또한 한돈 육포, USB 선풍기, 아광봉 등 축제 현장을 더욱 빛내줄 다양한 경품도 제공했다.

특히 16일 진행된 광운대학교 축제현장에서는 자취생 한돈 레시피 요리대회를 개최, 대한민국 트렌드를 주도하는 대학생들의 다양하고 새로운 한돈 요리가 공개돼 관심을 모았다.

한돈자조금은 대학 축제 외에도 젊은층 대상으로 한돈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 대학생 중심의 본격적인 홍보 마케팅 활동도 전개한다.

• 육우자조금, '육우랑 푸드트립' • 불거리·먹거리·즐길거리 가득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함평나비대축제 기간 우리 육우에 대한 우수성과 경제성, 신선함 등 우리 땅에서 자란 우리 소, 육우만의 장점을 직접 알리기 위한 육우랑 푸드트립을 진행했다.

육우랑 푸드트립은 시식 시설이 탑재된 푸드 트레일러를 가지고 스테이크 전문 셰프와 함께 지역별로 순회하는 시식행사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우수한 우리 육우를 직접 맛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우의 올바른 대중인식 확립과 육우 소비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행사에서는 전문 스테이크 셰프가 품질이 우수한 육우 등심부위를 직접 요리하며, 소비자들은 육우 브런치를 직접 시식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우리 육우의 각 부위를 맞추는 육우 퀴즈 게임과 육우 캐릭터와 함께하는 포토타임 등 연령제한 없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행사들을 즐길 수 있었다.

• 우유자조금, 제주 민속오일시장서 • 도심속 목장 나들이 행사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가 5월 19일(토)~20일(일)까지 이틀 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도심속 목장 나들이' 행사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목장을 도심으로 옮겨온 가족 체험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생생한 목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이들에게는 우유에 대한 친근감 형성과 올바른 우유 정보 제공을, 어른들에게는 우유 효능 및 활용법 소개 등을 통한 우유 소비 촉진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도심속 목장 나들이는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며, 행사의 세부 프로그램은 총 5개의 주제로 사전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목장체험 프로그램, 요리 및 활용체험 프로그램, 부대 프로그램 등이다.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젖소의 사육 과정과 국산 흰 우유가 목장에서 어떻게 생산되고,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 닭고기자조금, 제2차 위원회 열고
● 관리위원장 선거 체제 돌입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는 5월 15일(화) 2018년도 제2차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제4기 대의원을 구성키 위한 일정과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관리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선 닭고기자조금 대의원의 임기가 지난해 12월 21일로 만료됨에 따라 대의원 선거를 실시코자 선거 날짜를 정했다. 관리위원들은 고병원성 시 종결 선언이 5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종결 선언 이후 30일 안에 선거일을 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선거는 6월 말경 개최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날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또한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지침(안)을 마련, 자격 조건에 공고일 1년 이전에 자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키로 의결했다.

이어 진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김정주 건국대 명예교수가 위촉됐으며, 위원에는 장관수 닭고기자조금 차장, 황일수 대한양계협회 전무, 정지상 한국육계협회 부회장, 주진희 한국토종닭협회 실장, 정상태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장 등이 임명됐다.



●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취임식
● 제5·6대 상임대표 및 운영위원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제5·6대 상임대표 및 운영위원 이·취임식을 5월 10일(목) 경기 과천시 한국마사회 럭키빌에서 개최했다.

이연주 의원(바른미래, 광명을),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김상남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 이유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사장을 비롯해 정관계 인사들과 소비자단체, 농축산단체 대표,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임원, 농·축협 조합장 등이 대거 참석해 지난 5대 운영진의 노고를 치하하고, 신임 운영진의 취임을 축하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상임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업의 가치는 훼손됐으며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업·농촌은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축산인권의 증진을 정책 대안 제시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